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사회의 기현상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김 연 주

현대사회의 기현상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김 연 주

# 인 준 서

김연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 기술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가속화된 우리의 생활환경은 활기에 차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급속도로 가속화된 현대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탈락되어 버리는 냉혹한 경쟁의 세계,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 잠시 멈춰 서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중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인간을 위한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우리의 현재는 자의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중에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무의식속에 보내버린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일구어 놓은 현대 문명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일깨워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자동차는 현재를 대변하는 매개체로서 물질주의, 대량생산, 스피드 혁명, 자연 파괴의 주범인 것이다. 이를 자연의 일부인 벗짚을 통해 재탄생시킴으로써 칫바퀴 돌듯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꼭 막힌 세상에 찌들어있는 그들에게 한걸음 뒤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그들 스스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일깨워주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현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명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문제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 할 수 있는 자동차와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의 식생활에서 주식이 되는 쌀의 줄기인 벚짚을 매개체로 하여 현대 산업 문명의 발달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자연의 일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고양시켜 주며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성이 무엇인지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형성배경을 서술하고 작품의 표현방법과 작품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본인의 작품세계를 서술하고 향후 작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본 론 .....	4
1. 작품형성배경 .....	4
2. 작품의 표현방법 및 특징 .....	6
1) 작품표현 방법 - 이미지 생성 .....	6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0
A. 재료의 특수성 .....	10
B. 반복성 .....	15
3. 작품분석 .....	17
III. 결 론 .....	25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낮선도시, 혼합재료, 가변설치, 2008 .....	17
【작품 1-1】	낮선도시, 혼합재료, 1400x2200x1400(mm), 2008 .....	18
【작품 1-2】	낮선도시, 혼합재료, 1400x1300x1400(mm), 2008 .....	19
【작품 2】	낮선도시, 혼합재료, 450x450(mm), 2008 .....	22
【작품 2-1】	낮선도시, 혼합재료, 450x450(mm), 2008 .....	23

# I. 서 론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인류가 불의 발견으로 시작한 문명은 무한한 발전으로 산업사회의 발달과 첨단과학문명 및 정보화로 인간의 생활이나 사고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오늘날 이러한 발달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제는 그 폐단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 존재는 기계화로 인해 소외당하고, 산업화로 인한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희망도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미래를 향했던 시선을 되돌아보며 전통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오늘을 잊고 산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고 질주한다. 검은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도로 이곳저곳 미끄러져 튕구는 자동차들은 과속이 빛은 참혹한 결과물이다. ‘빨리빨리’는 20세기 한국인들만의 구호가 아니라, 자의반 타의반 산업화에 내몰린 모든 개발도상국 구성원들의 주문인 것이다. ‘빨리빨리’가 있는 곳에는 늘 과속이 있고, 편법이 있고, 뇌물이 있고, 거품이 있고, 사고가 있다. 이제 이곳 사람들에게도 질주하는 자동차는 풍요와 미래의 세계로 달리는 씩씩한 철마가 아니라 악몽의 현실적 기원이 되어 있다. 그들 역시 이처럼 속도에 탐닉하는 한 앞서간 나라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느린 속도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에 대해 느리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삶의 정상 속도가 ‘슬로모션(slow motion)’ 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우리는 지독히도 빠른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sup>1)</sup>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간을 위한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과학 기술이 인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통제되지 못할 때에 발생하게 되며 다시 말해 이는 기계에 인간이 예속된 사회가 되었음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인간은 반성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게 되고, 기술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며, 인간이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고갈과 팽창하는 인구문제, 도시화 · 공업화로 인한 자연 환경 파괴, 생태계의 위기 초래, 전쟁 기술과 살인 무기의 발달 등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간들 사이의 경쟁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파멸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몰아가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며, 진정으로 인간적인 성찰을 할 시간을 빼앗고 있다.<sup>2)</sup>

예술표현에 있어서 소재는 매우 다양하며 그 중 많은 예술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현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술가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은 작품표현에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 사람들로 사회에 대한 생각을 환기시킨다.

본인의 작품 또한 사회현상들 중 일부분인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 야

1) 이주현 저,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8, p.296, P.306-307

2) Konrad Lorenz, <현대문명이 범한 여덟 가지 죄악>, 양승태 譯,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p.124

기되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본인의 생각으로 연구하여 조형화 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형화된 이미지를 통해 산업 문명의 폐해로 오염되어진 삶의 본질을 회복하고 고양시켜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 대한 이론적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조형세계에 나타난 미의식을 체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작가에게 작품이 주는 이미지는 작품 속에서 의미 산출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모델이다. 이때 작품이 주는 의미는 작가가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아 표현하는 것으로 시대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때때로 인위적인 것에 대한 괴리감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곤 한다. 인간이 힘을 가하여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낄 때, 자연은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자연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전해주는 영원한 휴식처이다. 따뜻한 햇살이 우리에게 단잠을 청하여 잠시 평온한 일상으로 바꾸어주듯이, 살아있는 생명의 향내와 모습만큼 우리에게 마음 편안함과 행복감을 안겨주는 대상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연은 우리의 주변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집 밖을 나서면 청명한 푸른 하늘을 만날 수 있고, 거리에는 우리와 걸음을 함께하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으며, 뽕뽕이 들어선 건물들 사이에는 자연을 상징하는 풀과 나무들이 항상 자리하고 있다.

자연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서로 조화되고 융화되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순수한 상태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정서적 매

개체로서 존재한다. 흔히 접하는 물, 흙, 바람, 산, 바다 등의 자연물은 그 가운데 들려지는 갖가지 자연의 소리와 향과 함께 인간을 휴식으로 안내하는 가장 쉽고 가까운 일차원적 수단이다. 인간은 이런 자연을 통하여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그 에너지는 무언가 잠시 멈추었던 것들을 연장해 갈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여 편리한 사회를 내다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가속화된 사회화의 바람으로 인해 인류 생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이렇듯 생활의 편리를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들이 다시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세상은 부조리함으로 가득 차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이러한 현실도 망각한 채 앞만 보고 끊임없이 매일 반복된 생활을 쳇바퀴 돌 듯 되풀이하고 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문명의 발달과 동시에 심각해져가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중점을 두어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현실에서 직시해야할 위기를 인식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에게서 인간에게 보복을 가하는 참담한 대립적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작품을 통해 담고 있으며 이를 조형예술을 통해 묻고자 한다.

## 2. 작품의 표현방법 및 특징

### 1) 작품의 표현 방법 - 이미지 생성

이미지(Image)란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映像), 표상(表象), 심상(心象)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는 말로 심리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미지(Image)는 시대나 작가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보이는데 현대에 오면서 개인의 독자성이란 시각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생활 속에 접한 경험과 사물은 곧바로 작가를 자극하며, 또한 그들에게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준다. 이런 일상과의 접촉이 지속될수록 작가는 더욱 창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세계로부터 취한 것들은 작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외부세계와 접해 있는 자신의 삶은 직접적인 창작의 원동력 내지는 그 출발점이 된다. 더 나아가 삶에서 체득된 이미지를 통해 정서적 감각이 자극되고 이를 가시화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질적 세계에서 정신적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주변에서부터 얻은 소재가 단순히 그 사물의 외적인 형상만이 표현되지 않고, 그 내적인 의의에도 의미를 두어 대상에 자신의 직관적 감성을 구체적인 언어로 시각화, 상징화 시킬 때 하나의 이미지가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그 이미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것을 통해 한 존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작품의 이미지는 일상적인 주변 환경 속에서 객관적 시각에서만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성을

통해 형상화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물을 접하더라도 또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사고를 유추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작가 개개인이 접하는 이미지가 구상적인 표현이든 추상적인 표현이든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가들에게 선택되어진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예술의 참된 기능은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예술가만의 특이한 직관으로써 변형이 수반된다. 따라서 주제가 내용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주제는 불가피하게 어떤 변형을 가져오고 작가는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감정으로 다시 배열하여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한 구성적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살리면서 간결하게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의 전체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 본질과 특징적인 구조를 발견하여 대상을 어떠한 형태로 집약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조정하고 재형성하여 새로운 질서로 다시 창조해야 한다.

변형은 작품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작가의 표현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며 전달과정에서 작가의 의사를 극대화 시키는 표현기법의 도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형의 효과적 기능을 감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작가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 시킬 수 있으며 작가는 의도적으로 변형을 피하여 자신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적절한 표현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지각이 대상을 느낄 때에는 우선 그 대상의 두드러진 특징을 받아들이고 그 형태를 분리하여 확대 하였을 때 그 이미지는 극대화 된다.

극대화 시킨 형태는 오히려 단순하게 보이며 좋은 형태만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좋은 형태란 필요한 형태의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을 뽑아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본질의 파악은 나아가 형태의 특징적 표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사물을 보는 시선에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고정관념은 원래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자라면서 경험하는 교육이나 습관, 규칙 같은 외부 영향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현대의 작가들은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물체의 본질이 갖는 내적인 생명을 표현함으로써 새롭게 재창조해 내고 있다. 이는 현대 작가들이 대상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 또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 형상을 빌려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내면에 잠재해 있는 감정들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즉 현대 산업문명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그것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통하여 본인의 감정뿐 아니라 지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단순화하였다.

도시가 어둠에 잠길 무렵 고층 빌딩을 벗어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우리 앞으로 자동차들이 현대 문명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끝없이 줄 서 어딘가를 향해가는 자동차, 변화무쌍한 네온사인, 울려 퍼지는 도시 소음에 우린 문혀 초록색 신호 앞에서 조차 길을 잃어버린 양 멈춰 서 있다. 어느 순간 낮익은 풍경들이 낯선 그것이 되어 도시 밖으로 우리를 내몰다.

포드 (Henry Ford: 1863~1947)<sup>3)</sup>에 의해 1913년에 일관작업도정 도입

---

3) 포드 (Henry Ford: 1863~1947) 미국의 기술자이자 사업가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설자이다. 1890년 에디슨 조명 회사 기사로 초청되어 근무하던 중 내연 기관을 완성하여 1892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다. 1903년 세계 최초의 양산 대중차 포드 모델 T의 제작을 시작하였다.

으로 자동차가 대량생산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도시 어디에 발을 내딛듯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풍경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자동차는 이렇게 도시의 한 풍경일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광고와 영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현대 도시 문명의 여러 특질이 중첩되어 있는 기호이다. 이동 수단으로써의 편리로 그것은 빠른 속도의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면에는 파괴와 죽음 같은 치명적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스틸로 제작된 차디찬 차체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만큼이나 우리에게 현대 사회의 냉소를 쏟아낸다.<sup>4)</sup>

이렇게 자동차는 현대 도시 문명의 이중성과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해 가고 있는 현대 산업 문명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는 본인의 작품에서도 현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목각인형처럼 생명력 없이 끊임없이 달리기만 하는 고철일 뿐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난 순수한 대상이다. 고층빌딩과 수많은 인간들의 틈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한데 어우러져 군림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벗짚을 사용하여 본인의 심상 세계에 생명성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의미로 가득찬 자연을 본인의 작품에 그대로 옮겨 전하고자 하였다.

---

4) 이재은, <도록 서문 中>, 2008

##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A. 재료의 특수성

본인은 자연 친화적인 벗짚을 통해 익숙했던 현대 도시가 낯설어져 방황하는 이들에게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sup>5)</sup>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루소는 자연을 모든 인위적인 것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인간과 자연에게 끼친 해악을 나열하고 비판하면서 자연을 찬미하였다.<sup>6)</sup> '스스로 그러하다' 혹은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자연(自然)'이라는 단어 그대로의 뜻과 같이 자연은 인위적인 것과 반대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과 행위는 자연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따라서 루소는 인간이 이루어놓은 인위적인 것은 인간에게나 자연에게나 해를 입힌다고 여겼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말해 자연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는 방법이고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이루는 것이며 참된 삶을 영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

5)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의 낭만주의 철학자로 합리와 낙관이 지배하던 18세기의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자연을 노래하고 감성의 순수한 꿈을 추구했던 루소의 사상은 여러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문명의 규제와 억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6) 안인희, 정희숙, 임현식, <루소의 자연교육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p.55

본인의 작품의 주된 재료인 벗짚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탄성력과 보온성이 좋고, 물에 축였을 때 늘어나는 인장력이 있으며 응집력이 있다. 그래서 벗짚으로 짚방석 및 자리도 만들어서 폭신하게 사용하고, 보온성이 좋으면서 바람도 잘 통해서 짚신으로 사시사철 사용하였으며,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에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로 이용, 또는 이불대신 덮고 깔고 자기도 하였다. 또한 벗짚은 구하기 쉽고, 다루기도 용이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었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애용해 온 가장 오래된 주택 건축자재의 하나이기도 하다.

벗짚이라는 물질은 195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폐품이나 쓰레기 등으로 현대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자 했던 폐기물 미술<sup>7)</sup>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1960년대 말부터 이탈리아 중심으로 활동한 미술가들의 경향인 아르테 포베라<sup>8)</sup>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아르테 포베라 경향의 작가들은 전통적 미술의 재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물질에 담긴 기억을 환기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본인은 벗짚으로 현대 문명의 부작용을 상징하고자 본인이 제시한

---

7) 폐기물 아트(junk art)는 폐품·쓰레기·잡동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정크아트라고 한다. 폐품을 소재로 하지 않는 전통적 의미의 미술이나 갖가지 폐품을 만들어내는 현대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고자 하는 작품들이다. 정크아트의 출발점은 로버트 라우션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콤바인 페인팅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이후 산업폐기물이나 공업 제품의 폐품에서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는 작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8)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는 이탈리아어로 '가난한 미술' 또는 '빈약한 미술'이라는 의미이다. 1967년 이탈리아의 미술 비평가이며 큐레이터인 제르마노 셀란트(Germano Celant)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로 '보잘 것 없는' 재료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미술을 말한다. 196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적 미술운동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문맥에서 예술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 운동은 과정미술, 개념미술, 환경미술 등과 맥을 같이 하며 국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자동차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는다. 스틸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을 제거하는 벗짚은 마치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sup>9)</sup> 가치유의 에너지의 기제로 제시한 지방과 꿀, 펠트와 다르지 않다. 흥미롭게도 벗짚은 본래 물질의 특성인 온기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 전통 주거 형태인 초가지붕에서 풍겨오는 향수를 환기시킨다.<sup>10)</sup>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내면을 잘 지켜주는 ‘지방(fat)’, 따뜻하게 감싸주는 ‘펠트(felt)’, 열을 전도해 주는 ‘구리’, 잘 조성된 ‘꿀’ 등을 이용한 작업은 조직적이고 경험적인 시각이 주는 강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속박으로 인한 소외의 상황을 극복하는 오브제가 되어 그의 액션적인 작업에서 상징화된다.

그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방질은 열과 온도에 의해서 유동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가능성을 표현하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굳은, 혹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꿀은 살아있는 실체라 하여 죽어버린 생명력을 소생시켜 줌으로써 보이스에게는 생각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꿀을 머리에 온통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스는 사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분명히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물론 보이스에게 있어 인간의 능력은

9)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 뒤셀도르프 국립미술대학, 1979년 뉴욕 구겐하임 회고전, 1962년 전위예술 단체인 플럭서스 활동, 1962년 뒤셀도르프 국립미술 대학교수, 1950년 나무조각과 불탄재료로 작품발표, 보이스처럼 현대미술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가도 드물다. 그가 생전에 남긴 많은 행위와 진지한 연설들은 그의 광적인 기질과 합 RP 현대미술의 지위지지 않는 신화가 되었다. 그가 사망한 이후로 미술사가들과 그의 예술 세계에 깊이 매료된 “보이스 추종자”들은 보이스를 다시 발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0) 이재은, <도록 서문 中>, 2008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착안해 내는 것이다.

또한 펠트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보호막과 같은 절연체 (insulator)를 의미함과 동시에 오히려 외부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의미의 물질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주는 따뜻함은 보이스의 작품에서 하나의 정신적인 잔영 효과로 비쳐진다. 특히 절연의 의미보다 추위나 열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색채들을 강조해 주는 펠트의 회색에도 보이스의 낙천성이 함축되어 있다.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역할로서 펠트는 또한 고요를 의미하기도 한다.

요셉 보이스가 사용한 지방과 꿀, 펠트와 마찬가지로 본인 작품의 주된 재료인 벗짚은 그 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작품에 끌어들이며 본인이 원하는 작품의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은 차체에 거울을 부착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승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한다.

거울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거울이라는 특성상 그 이미지는 반사되어 나타나고 또 반사되어 끊임없이 나타난다. 혼란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반성한다. 그러나 그 기억이란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거울 속 장면과 엇갈리게 겹쳐 있는 배경 화면과 자신의 모습, 갑자기 나타나는 그림자 등을 통해 거울을 통한 기억이 갖는 불완전성을 체험하게 된다.

작품에서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통해 의식과 내면 의식의 불화와 분열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가 서로 꽤 닮았으면서도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의식과 내면 의식은 한 뿌리에서 나왔으면서도 불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람객은 본인의 공간을 바라보는 자일 뿐 아니라 그것의 일부이다. 벗짚으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승차의 주인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도시가 언제부터 낯설어진 당신이다. 본인은 거울을 부착한 자동차의 방향과 위치를 다르게 해 바라보는 이의 신체를 파편화시킨다. 신체를 파편화시킨다는 것은 또한 자아 분열을 뜻한다. 이러한 자아 분열은 한 주체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그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 분열은 현실에 대한 부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도시에서 분열하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당신은 벗짚 차에 몸을 싣고 그곳을 벗어난다.

본인의 전시 공간은 사방의 벽 뒤로, 땅 아래로 사라져 가고 있는 자동차 다섯 대의 단편들과 뒤집힌 채 허공에 떠올라 있는 자동차 한 대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벗짚으로 제작된 차 한 대를 천장에 거꾸로 매단다. 사회에서 굳어져 있는 존재 방식을 거꾸로 제시해 그것을 풍자하는 업사이드 다운(upside down)으로 자연을 통한 현대 도시 문명의 위기 극복이라는 본인의 모티프는 갈무리된다. 벗짚으로 자동차를 제작하고 그것의 한 부분에 거울을 부착한다. 스틸의 차체를 벗짚으로 바뀌어나가는 본인의 작업과정 속에는 현대 산업 문명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자연의 숨결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sup>11)</sup>

자연과 실제의 삶으로 실제의 공간과 실제의 물질들로 구성하고자

---

11) 이재은, <도록 서문 中>, 2008

하는 본인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사회적인 모순들과 이율배반, 구체적 사물의 모습, 물리적 현상의 실제, 주변 삶의 모습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함이다.

## B. 작품의 특징 - 반복성

반복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요소의 대상들 이상 배열하는 것으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 ‘반복’이 지닌 평범하고 비개성적인 특성은 오늘날 대중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중문화와 상업사회의 반복적인 대량생산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이미지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지닌 추상적 효과를 지니게 한다.

현대미술에서의 반복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작가는 반복을 통하여 일종의 무위 상태에 접근하여 보는 이에게도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 관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철저한 해방감, 자유로움 속에서 가지는 경지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본인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크게 드러난다. 균일한 반복을 통한 표면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많은 공(功)을 들여 만들어지지만 보여 지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질 들뢰즈(Deleuze, Gilles, 1925~1995, 프랑스)<sup>12)</sup>는 “반복은 동일성을 자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를 형성시키고 또 하나의 반복은 비슷

---

12) 질 들뢰즈(Deleuze, Gilles, 1925~1995, 프랑스) 프랑스의 철학자, 교수로 철학·문학·과학을 강의하고, 퇴임한 후에는 출판 좌파를 옹호하며 집필과 방송활동을 했다. 구조주의 등 1960년대의 서구 근대이성의 재검토라는 사조 속에서 서구의 2대 지적 전통인 경험론·관념론이라는 사조의 기초형태를 비판적으로 해명했다.

한 것을 다른 존재로 있게 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반복은 단순한 동일성의 실현이 아니며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반복은 미묘한 차이로 인식되며, 현대에 와서 미술이 언어로 설명되기 어렵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연계성을 이룬다.<sup>13)</sup>

그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변하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반복을 통해 ‘언제나 생성되는 것’이다.

본인 역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노동집약적인 반복적 행위를 통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어느 하나에 몰두할 동안에 본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을 느끼고, 또 그 어떠한 상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움직임들을 통해 작품에 나타나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본인에게는 정말 편안한 감정을 가져다주고, 그런 행위가 ‘나’의 존재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

13) Gilles, <차이와 반복>, 김상환 譯, 민음사, 2004, 서론4절

### 3. 작품분석



【작품 1】 낮선도시 (전경), 혼합재료, 가변설치, 2008



【작품 1-1】 낮선도시, 혼합재료, 1400x2200x1400(mm), 2008



【작품 1-2】 낮선도시, 혼합재료, 1400x1300x1400(mm), 2008

【작품 1, 1-1, 1-2】 낮선도시

연 도 : 2008년

크 기 : 【작품 1】 가변설치

【작품 1-1】 1400x2200x1400(mm)

【작품 1-2】 1400x1300x1400(mm)

재 료 : 혼합재료

제작방법 : (작품 1-1)는 각목을 이용하여 뼈대를 제작하고 합판을 한 면씩 재단한다. 재단되어진 합판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벗짚을 붙이고 완성되어진 한 면마다 타카로 고정시킨다. 실리콘으로 아크릴밀러를 접착하고 아크릴밀러의 테두리는 벗짚을 꼬아서 실리콘으로 고정하여 마무리한다.

(작품 1-2)은 사각 철빔을 사용하여 뼈대를 제작하고 (작품 1-1)와 마찬가지로 한면씩 합판을 재단한 후 합판에 일정하게 절단한 벗짚을 스테플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층층이 고정시켜 견고하고 단단하게 밀도를 높였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아크릴밀러를 고정시키고 벗짚을 꼬아서(새끼줄) 마무리한다.

(작품 1)에 보이는 자동차들의 모든 바퀴는 (작품 1-1)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후 케이블선으로 몸체와 결합시킨다.

작품설명 :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간을 위한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동차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의 모티브로 삼아 급속도로 발전해나가는 현재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동차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대변하는 매개체임을 말한다. 현재 일상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

해나가는 현 시점에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일삼거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대안은 준비조차 없이 무조건 현재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지금 하루에도 무심코 지나쳐가는 수십수백대의 자동차를 통해 현재를 뒤돌아보고자 한다. 이동수단으로써의 편리로 빠른 속도의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이면에는 파괴와 죽음 같은 치명적인 위험이 항상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일부 동물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될 수도 있는 벚짚이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쓰레기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벚짚을 사용해 스틸로 제작되어진 자동차의 차체를 탈바꿈한 것은 벚짚이 가지고 있는 온기로 차가운 차체를 덮어주어 현대 산업문명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을 자연의 숨결로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 또한 움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차체의 일부인 거울을 스쳐지나감으로써 잠시동안만이라도 관람도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작품 2】 낮선도시, 혼합재료, 450x450(mm), 2008



【작품 2-1】 낮선도시, 혼합재료, 450x450(mm), 2008

【작품 2, 2-1】 낮선도시

연 도 : 2008

크 기 : 500x500(mm)

재 료 : 혼합재료

제작방법 : 본 작품 또한 (작품 1-2)과 마찬가지로 합판을 재단하여 일정하게 절단한 벗짚을 스테플러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층층이 부착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아크릴밀러를 고정시키고 테두리를 벗짚을 꼬아서(새끼줄) 마무리한다. 작품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의 일부인 나무(원목)를 선택하여 액자틀을 제작한다.

작품설명 :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하늘을 얼마나 올려다볼까 라는 생각에서 제작하게 되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잠시의 여유조차 없이 시간에 쫓기며 고정된 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작품을 통해 벗짚이 발산하는 자연의 향기와 만들어진 하늘이지만 작은 하늘을 통해 투영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여유로운 숨을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작품을 벗짚과 비슷한 색상의 원목 틀 안에 끼움으로써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현대 기술과 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에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가치관의 혼란과 인간 소외 현상 등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정책으로 개선하려 하고는 있지만 인간 중심의 수단과 도구로 인식함으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현대사회에서 겪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소재를 찾던 중 무심코 지나치던 교차로, 자동차의 경적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동차와 농경시대 때부터 생활용품, 건축자재였으며 우리의 주된 식(食)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쌀의 줄기이지만 현재에는 너무도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벚짚, 이들의 합체로 결국 새로운 이미지와 주제를 만들어 현대사회의 인위적인 모습에서 겪는 괴리감과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해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경험은 곧 삶의 흔적으로 인식된다. 본인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와 자연친화적인 벚짚을 사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전혀 다른 감성으로 느껴지는 이미지와 공간구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번 전시의 중요성은 작품 하나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적인 측면이나 개별 작품들이 갖는 의미에 있기 보다는 그 요소들이 공간과 어우

러져 관객으로 하여금 공간속에 하나의 이미지로써 인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그것은 결국 문명과 자연과의 동화와 합일이며 이는 인간의 미술이란 활동을 통해 생(生)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살아갈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작품제작 과정 중 본인은 객관적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의식과 창의적인 표현의 이미지 전달을 통해 예술적인 측면을 고루 겸비한 독창적인 시각 표현의 한 영역을 구축하기에 힘겨움을 느꼈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대상의 발견과 실험적 표현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과 시각화의 기능을 개발,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풍부한 감성과 개성적 표현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조형화해야 할 것이며 본인만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작품 제작 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적인 자세로 보다 나은 조형세계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1. 장 자크 루소, 「에밀」, 박호성 역, 책세상, 2003
2. F.W.J.셀링, 「조형미술과 자연과의 관계」, 심철민 역, 책세상, 2002
3. 로버트 럼리, 「아르테 포베라」, 박미연 역, 열화당, 2006
4.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8
5. 임영방, 「미술이 걸어온 길」, 학고재, 2003
6. 코나드 로렌즈, 「현대미술이 범한 여덟가지 죄악」, 양승태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7. 안인희, 정희숙, 임현식 「루소의 자연교육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9. 최광진, 「현대미술의 전략」, 아트북스, 2004
10. 조요한, 「예술철학」, 예술문화, 2003
11. 한스 제들마이어, 「현대예술의 혁명」, 남상식 역, 한길사, 2004
12. 장희진, 「차이와 반복을 통한 사이 공간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3. 이정경, 「자연의 이미지를 통한 조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4. 노동목, 「자연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표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ABSTRAC

### Formative research On anomalies of modern society

- With focus on my own works of art -

**Kim, Yeoun Ju**

**Dept. of Plastis Arts**

**Graduate School of Plastis Arts**

**Sungshin Womem's University**

As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and civilization, We live at a rate that currently is developing rapidly.

Better tomorrow than today, accelerated by human selfishness, We are full of vibrant living environment. But at the same time, We are living a very confusing era.

Accelerated rapidly with modern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 world that changes day by day, if you loose a tension, it can be eliminated the world of merciless competition, to live a very busy life, because of these things, in the reality of life will not be able to feel free and happy.

In this reality we are unconsciously self-destructive.

For human in industrial society, a situation that has dominated human by machines.

Regardless of our's own will but we now see that going out is unconscious.

We sent in the unconscious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upon the last time.

This is for a better life because we constantly have to try to prevent the side effect of modern civilization is the shortest way.

Also what we really want, you can realize will be the most sensible way.

On basis of my work of the car as the medium is represent by materialism, mass production, speed revolution, destruction of nature is the main cause.

Repeat the same routine everyday and this hard days, so i think this because i want give the opportunity to concern about "rice straw" which is part of this natural born again.

For this, currently living the era of what people really need to realize that I want to give the motivation and they want to realize themselves will want to pursur.

This research, current social issu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 civilication can symbolically represent the cars and which is part of nature and the main of our eating habits of rice straw uses as medium, so problem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ial civilization, a part of nature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nature of life and increase the recovery and that we face today, given the seriousness of what should be.

This thesis divided by three chapters.

1. introduction - describe purpose of research and research methods.
2. subject - describ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expression method and description of work.
3. conclusion - get all results of this thesis and describe my world of art and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action was.